

# 나주시, 에너지수도 걸맞는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축

### 환경부 신규 지원 대상 선정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 탄소중립 이행·연구, 에너지 전환 촉진 등 지원 업무

나주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활성화를 위한 컨트론타워를 구축한다.

나주시는 시가 최근 2025년 탄소중립 지원센터 신규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후 2050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다.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데 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 10곳 중 나주시가 포함됐다.

센터는 '지역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지원', '지역 탄소중립 정책 관련 조사·연구', '탄소중립 실천 사업', '에너지 전환 촉진', '탄소중립 관련 교육·홍보' 등 다양한 정책 연구와 실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실천 사업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센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전담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학교,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생활 속 실천 운동 확산, 주민 환경 교육 등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라며 "에너지수도 위상에 맞는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1차 신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은 사업 내용을 일부 재정비했다.

예초 5일이었던 사전 신청 기간을 여행 3일 전으로 바꿔 수요일 신청해도 주말여행이 가능하도록 신청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상세페이지에 화순 여행에 필요한 주요 여행 정보나 선물 꾸러미(웰컴키트) 구성품 내용을 추가, 한눈에 알기 쉽도록 보완했다.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fc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여행 3일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여행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단은 오는 가을 화순의 대표축제인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재단에서 주관하는 '운주문화축제'·'적벽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순의 생활 인구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화순군, 출항인 여행비용 50% 지원

### '화사로와 화순' 2차 사전 신청 지역업체 제품 '웰컴키트' 제공

화순군이 출항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인 '화사로와 화순' 2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

'화사로와'는 고향을 다시 찾은 출항인에게 여행경비의 50%를 선물꾸러미(웰컴키트)와 화순팍 쿠폰으로 돌려주는 지원 방식의 출항인 고향방문 지원사업이다.

선물꾸러미 웰컴키트는 화순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담아 정성껏 준비했다. 화순팍·화순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지역 제조업체의 제품을 엄선하여 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했고 여행 필수품인 휴대용 무선 충전기와 '여행 가방(트래블 레디백)'으로 최근 유행의 추세(트렌드)를 반영했다.

1차 사전 신청은 지난날 25일 마감됐으나 이후

2차 신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단은 사업 내용을 일부 재정비했다.

예초 5일이었던 사전 신청 기간을 여행 3일 전으로 바꿔 수요일 신청해도 주말여행이 가능하도록 신청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상세페이지에 화순 여행에 필요한 주요 여행 정보나 선물 꾸러미(웰컴키트) 구성품 내용을 추가, 한눈에 알기 쉽도록 보완했다.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fc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여행 3일 전 사전 신청을 하고 여행 종료 10일 이내에 정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단은 오는 가을 화순의 대표축제인 '2024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와 재단에서 주관하는 '운주문화축제'·'적벽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순의 생활 인구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강진 전통막걸리 MZ세대 입맛 자극 '인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 병영주조장(대표 김병형), 도암주조장(대표 박병형)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전통주의 명성을 이어오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막걸리에는 다른 술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고 유산균과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옛 붉은 벽돌로 쌓은 주조장 굴뚝이 6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영주조장은 김병형 대표가 선전 식품명인(제61호 김경식)의 대를 이어 운영을 하고 있다.

병영 설성막걸리는 국내 최초로 막걸리 분야 유기농인증 인증을 받았으며, 강진군 병영면 한들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를 사용해 탄닌이 없고 묵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도암주조장에서 생산되는 병영막걸리는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250~300℃에서 20분 가량 볶아서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중전의 텁텁한 맛을 빼제, 맛이 시원하고 뽕잎 향이 그윽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강진 전통막걸리.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직접 재배한 병영 및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기능성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정경 강진의 쌀과 물로 정성껏 빚어 맛을 내는 강진산 막걸리는 뒷맛이 깔끔해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강진산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막걸리로 문화 자제를 전파하는 전통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흥군 이자 수입 95억원...재정 운용 빛났다

### 2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

장흥군이 이자 수입 1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 약 9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2년 20억원대에 그쳤던 이자 수입과 비교해 4배 이상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자금 운용 전략을 통해 군 일반회계 자금만으로도 7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재정적 성과는 전라남도 회계과장을 역임한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흥군 입장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깊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했던 만큼 이자 수입 증가는 예산 운용의 승물을 띄우는 중요한 기여를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장기 예금상품 위주의 자금 운용을 고수해 왔지만 올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단기예금을 적극 활용하며 유유자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후 올해 2월 '공직자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성장'이라는 열쇠말을 도출해낸 장흥군은 군의회,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날로 발전해 가는 장흥을 상징하는 '성장장성'을 'BI 네이밍'으로 확정했으며 장흥군의 지명을 '성장'과 연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핵심 단어인 '성장'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갖춘 디자인 개발에 주력했고, 선별한 4개 시안을 놓고 인터넷 및 현장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총 5339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 결과 35.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시안을 최종 BI 디자인으로 결정했다.

최종 디자인은 받침 'ㅇ'의 크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특징적이며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울동감 있게 살렸다. 녹색



은 장성의 자랑인 청정 자연을, 파란색 계열은 첨단 복합 산업도시로의 성장과 창조적 미래를 뜻한다.

김한중 장흥군수는 "도시 브랜드는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지표이자 방향타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장흥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군민이 공감하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위해 힘을 모은 장흥군민과 언론인, 전문가, 용역사, 담당 공무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예선전 시리즈 2R 성료

### 1827명 마량면 찾아 낚시 열기 본선 10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 강진군수배 두족류 선상낚시대회' 등 예선전 시리즈 2라운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7~8일 마량항 일원에서 열린 마지막 예선전 시리즈는 참가 선수들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 지난 대회보다 여객량이 최대 5배나 늘었다.

두족류 우승자는 총 24마리, 약 5kg를 초과한 서도관(광주시)씨가 수상했다.

감성들은 최대 길이 52cm, 3마리 합산 약 3kg를 잡은 김현민(목포시)씨가 차차제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강진 마스터스대회 개최 이래 최초 여성 수상자도 배출했다.

권은근(강진군)씨가 3마리 합산 1.5kg를 초과해 4등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의 여객물은 마량낚도수산시장에서 문어 시식회를 열어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무

료 즐길 수 있었다고 군은 전했다.

대회 이틀간 1827명이 마량면을 방문, 5000만원 상당의 지역경제가 있었다.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감성돔 본선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마량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대폭 늘어 마량면 지역경제에 신바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성군, 신규 브랜드 BI '성장장성' 확정

### BI 개발용역 최종보고회

장성군이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도시 브랜드 비아이(BI,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인 '성장장성' 브랜드(사진)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지역 언론인,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새롭게 확정된 도시 브랜드 최종안 및 응용안 발표와 개발 과정 소개,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군이 도시 브랜드 개발을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부터였다. 6개월 만인 12월 2차 중간보고회에서 '가을'을 주제로 한 도시 브랜드가 제안됐지만, 장성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담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중론에 따라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올해 2월 '공직자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성장'이라는 열쇠말을 도출해낸 장흥군은 군의회, 언론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날로 발전해 가는 장흥을 상징하는 '성장장성'을 'BI 네이밍'으로 확정했으며 장성군의 지명을 '성장'과 연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은 핵심 단어인 '성장'에 부합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갖춘 디자인 개발에 주력했고, 선별한 4개 시안을 놓고 인터넷 및 현장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총 5339명이 참여한 선호도 조사 결과 35.6%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시안을 최종 BI 디자인으로 결정했다.

최종 디자인은 받침 'ㅇ'의 크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특징적이며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울동감 있게 살렸다. 녹색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에 조성한 실내수영장.

### 함평 실내수영장 준공 2년 공사 끝 내달 개장 성인용·유아용 풀 운영

함평군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함평 실내수영장을 10월 준공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함평 실내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624㎡ 규모로 조성했으며, 성인용 풀 6레인과 유아용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했고, 2년 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현재 안전관리요원과 환경정비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완료했으며, 10월 준공 이후 올레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실내수영장 개관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 선택 기회 확대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이 많은 주민의 숙원이었던 만큼 세부 작업과 안전시설 공사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함평군 토지·주택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4만1372건, 31억4100만원

함평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372건, 31억4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8억6100만원 대비 2억8000만원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9.8%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0.48%)과 대동면 골프장의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가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내 함평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2~5)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